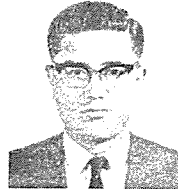


**白英鶴 室長**  
〈科技処 企副管理室長〉

최근 정부가 단행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합 작업의 주역으로서 탁월한 솜씨를 보였다. 솔직 과묵한 성격으로 업무추진력이 높다는 평을 듣는다.

서울工大를 졸업한 이래 줄곧 空土 교관으로 근무하다가 68년 官界에 투신, 科技処 진흥국장·원자력상임위원과 심의실장을 역임했다.

취미는 음악감상과 독서이며 부인 韓銀淑여사와의 사이에 2男2女를 두고있다. 慶南金海産. 51세.



**林珞圭 委員**  
〈科学技術処 原子力 常任委員〉

国立科学館長으로 있다가 1년여만에 本処로 복귀한 林珞圭 원자력상임위원은 61년 原子力 研究館으로 과기처에 발을 들여놓은뒤 과기처 연구조정관, 駐美대사관科学館, 技術協力局長, 振興局長등 要職을 두루 거쳤다.

서울工大와 美国미시건大学院을 거쳐 서울大 大学院에서 原子力工学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특히 과학관장 재직시 科学館화재이후 단시 일내에 정상복구를 이룩하는 수완을 보였다.

忠南 論山 출신으로 사진촬영이 취미인 林상임위원은 부인 金瑛泰여사와의 사이에 3男을 두고 있다. 48세.

## 새얼굴



**趙庚穆 室長**  
〈科学技術処 審議室長〉

趙庚穆과기처심의실장은 經濟企副院에서 67년 科学技術処 발족과 함께 자리를 옮겨 조정과장, 진흥과장등 주요보직을 거쳐 76년 駐美대사관 科学官으로 근무하다 80년 귀국, 原子力안전국장을 역임했다.

京畿中·高과 서울工大를 졸업, 英語實力이 뛰어난 趙심의실장은 科技処 복귀후에는 政府 出捐 연구기관의 통합작업에 산파역을 맡기도 했다.

바둑이 취미인 趙심실장은 부인 朴海子 여사와의 사이에 1男1女를 두고 있다. 44세. 서울출신.



**權原基 館長**  
〈国立科学館長〉

활달한 성품으로 上下간에 인기가 높다.

일을 겁낼줄 모르는 權관장은 科技処 설립당시 산파역을 맡았으며 科学院과 大德 연구단지 건설을 주관하는등 큼직한 일을 무리없이 해냈다는 평을 듣는다.

延大 商大, 美하버드大学院을 졸업한 그는 경제기획원 협력사무관, 과기처 협력과장, 인력계획관, 심의관등을 두루거쳤다.

그는 또 과기처 재직시 장기 과학기술개발계획과 관계법령 제정등에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취미는 등산이며 부인 李京熙여사와의 사이에 2男1女를 두고있다. 46세. 慶北 奉化출신.



金 知 恩 所長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는 1월 9일 理事會를 열고 第2代 所長에 金知恩(51세·科技廳 기획관리실장)씨를 選任했다.

新任 金知恩소장은 東亞大(法政學部法律學科) 및 서울대行政大學院을 졸업한 후 英國 LEEDS 大學校에서 開發行政學을 수학했다. 原子力院 總務課長(61년), 原子力庁사무국장(68년), 國立科學館長(73년)을 역임했으며 79년부터 科技廳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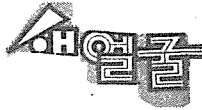
朴 肯 植 所長  
〈韓國標準研究所長〉

第2代 韓國標準研究所長에 朴肯植박사(46세·原子力委常任委員)가 취임했다.

新任 朴소장은 58년 서울대문리대를 졸업한 후 68년에 벨기에 쾨트대학원에서 放射化學으로 理學博士學位를 받았다.

原子力研究所 研究官으로 연구기관과 인연을 맺은 朴소장은 70년부터 5년간 울산공대교수를 역임했으며 그후 科學技術廳로 자리를 옮겨 과학기술심서관, 기술개발관, 원자력개발국장, 원자력위원회 상임위원등을 역임, 과학기술행정을 두루 익혔다.

고전음악 감상이 취미인 朴소장은 부인 金元熙여사와의 사이에 1男2女를 두고있다.



玄 炳 九 所長  
〈韓國動力資源研究所〉

資源開發研究所와 綜合에너지研究所의 통합 연구소인 韓國動力·資源연구소장에 玄炳九박사(51세)가 취임했다.

新任 玄소장은 서울출신으로 54년 서울工大 광산학과를 거쳐 61년 美 콜로라도 대학원에서 工學博士學位를 받았다.

62년부터 서울대공대에서 후진양성에만 전념해오다 76년 資源開發研究所가 발족되면서 소장으로서 부임, 그동안 연구소의 향상 발전에만 주력해 왔다.

등산과 독서가 취미인 玄소장은 부인 申喜淑여사와의 사이에 1男2女를 두고 있다.



崔 順 達 所長  
〈韓國電氣通信研究所〉

電氣機器試驗연구소와 한국通信技術연구소가 통합, 발족한 韓國電氣通信연구소 소장에 崔順達박사(55세·동양나이론 상무이사)가 취임했다.

초대소장직을 맡게된 崔박사는 경북대구 출신으로 서울대공대 전기과를 거쳐 69년 美 스탠포드대서 工學博士學位를 받았다.

69년 美 캘리포니아工大부설 젠티추진연구소 책임연구원, 76년 金星社 중앙연구소장, 79년 東洋나이론 전자사업담당 상무이사를 역임했다.

스포츠와 독서가 취미인 崔소장은 부인 洪惠貞여사와의 사이에 2男2女를 두고있다.